

## 美 4월 고용지표 내용과 뉴욕 금융시장 반응

### 1. 고용 지표

- '15.4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는 전월대비 **22.3만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22.8만명)를 소폭 하회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21.3만명**(예상치 +22.5만명) 증가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1.0만명** 증가
    - 업종별로는 지난달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인 도소매 부문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제조업도 3개월째 0.5만명 이하의 낮은 증가를 보인 반면 건설업과 여타 서비스 부문(도소매 제외)은 전월 부진에서 회복되는 모습
      - 임시직은 2개월 연속 증가
    - 직전 2개월치('15.2~3월중) 취업자수는 3월\* 중심으로 **3.9만명** 하향조정
      - \* 3월 취업자수는 4.1만명 하향조정에 따라 2012.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하의 증가를 기록
        - 민간부문은 **3.8만명** 하향조정
          - 2월: 0.3만명 하향(+26.4만명 → +26.1만명), 3월: 3.5만명 하향(+12.9만명 → +9.4만명)
        - 정부부문은 **0.1만명** 하향조정
          - 2월: 0.5만명 상향(0.0만명 → +0.5만명), 3월: 0.6만명 하향(-0.3만명 → -0.9만명)
  - 경제활동참가율(3월 62.7% → 4월 62.8%)이 전월대비 0.1%p 상승한 반면 실업률(5.5% → 5.4%)은 0.1%p 하락하여 '08.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U-6 실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도 0.1%p 하락(10.9% → 10.8%)
  - 주당 평균노동시간(34.5시간)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24.84 → 24.87달러, 전월치 0.02달러 하향조정, 전월비 +0.1%)은 시장 예상치(+0.2%)를 하회

非농업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非농업 취업자수 주요 부문별 증감

(단위: 천명)

	'14.4월	'15.2월	3월	4월
■ 非농업 전체	330	266	85	223
- 민간 부문	313	261	94	213
(건설)	41	31	-9	45
(제조)	11	3	0	1
(도소매)	57.6	33.5	34.4	7.6
(운송·창고)	12.9	9.4	8.1	15.2
(교육·의료서비스)	39	61	35	61
(여가·호텔·식당)	45	61	-6	17
(임시직)	13.8	-4.4	13.2	16.1
- 정부 부문	17	5	-9	10

## 2. 금융시장 반응

### (시장 동향)

- 3월 취업자수가 상당폭 하향조정되고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고용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소 우세한 가운데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 완화 등으로 금리는 하락, 주가는 상승한 반면, **미달러화**는 독일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강세
  - **미국채(10년물)** 금리는 헤드라인 취업자수가 예상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표 발표 직후의 갭 하락폭은 크지 않았으나 이후 세부적 지표 부진이 주목을 받으며 하락폭이 확대
    - 만기별로는 3년 주변 금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10년 이상 장기물은 오후장에서 차익실현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이 축소
  - **주가(다우지수)**는 6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 완화 등으로 큰 폭 상승 개장한 후 횡보하면서 전일 증가 대비 1.5% 상승 마감
  - **미달러화**는 독일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강세로 출발한 후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제한된 반응(일시적 변동성 확대)을 보이며 강세 마감
    - 다만 미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만 강세를 보였고 영국 총선 결과(보수당 과반수 의석 획득) 영향으로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큰 폭의 약세(USD/GBP 환율 1.4% 상승), 엔화에 대해서는 보합을 나타내는 등 상대 통화별로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
  - **금가격 및 유가**는 연준의 조기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으로 각각 소폭 상승

주요 금융지표 동향

		'14년말	'15.4말	5.7	5.8 <sup>1)</sup>	전일 대비
미국채	2년물	0.66	0.57	0.63	0.57	-6bp
	10년물	2.17	2.03	2.18	2.14	-4bp
주가	다우	17,983	17,841	17,924	18,191	+1.5%
	S&P 500	2,080	2,086	2,088	2,116	+1.3%
환율(\$/€)		1.2104	1.1224	1.1267	1.1205	-0.6%
금(\$/온스당)		1,182	1,184	1,185	1,189	+0.3%
WTI US/bbl		53.3	59.6	58.9	59.4	+0.8%

주: 1) 뉴욕 16:30분 기준

미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중변동 추이



## (월가의 평가)

□ 실업률이 하락하였으나 헤드라인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데다 직전 2개월 취업자수 하향조정과 시간당 평균임금 예상치 하회 등도 주목을 받으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근소한 우위를 보임

- 금번 고용지표가 3월 부진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반등을 나타냄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금리인상시점 전망은 종전대로 유지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지표 반등 폭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침에 따라 금리인상시점이 앞당겨지기보다 늦추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더 높아졌다는 견해를 피력

(Goldman Sachs) 헤드라인 취업자수가 시장예상치에 부합하였으나 직전 2개월 취업자수 하향조정과 시간당 평균임금 예상치 하회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약간 부진한 지표로 평가. 이에 따라 9월 금리인상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9월 인상 가능성과 그 이후 인상 가능성 간에 큰 차이가 없어진(close call) 것으로 판단

(BoA Merrill Lynch) 최근의 여타 경제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지표도 전반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평가. 연준은 forward guidance 삭제, 지표 의존성 강조 등 통화정책 정상화의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으나 금리인상에 필요한 합리적 확신을 갖기에는 고용뿐만 아니라 GDP 및 인플레이션 등 지표 개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함. 이에 따라 기존의 9월 금리인상 전망은 유지하지만 12월 이후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JP Morgan) 헤드라인 취업자수는 예상대로였으나 세부 지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임금상승률 예상치 하회로 연준이 6~7월내에 서둘러 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약화된 반면 실업률 등에 비추어 노동시장 slack 축소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감안하면 이번 고용지표의 금리정책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

(Barclays) 헤드라인 취업자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1/4분기 성장률 부진에 따른 경제 모멘텀 상실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전월치 하향조정을 감안하면 반등의 폭이 크지 않았고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를 변화시킬 만큼 견조한 지표는 아닌 것으로 평가. 이에 따라 9월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

(Citi) 3월 취업자수 하향조정으로 날씨 등에 의한 부진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 반면 4월 취업자수는 추세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 즉 기초적인 성장세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1/4분기에 일시적 부진을 보인 GDP도 향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

(UBS)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전월 상승률도 하향조정되는 등 임금 상승이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급 및 노동력 구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되는 고용비용지수(ECI)의 상승 추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청구건수 및 실업자/구직건수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임금상승압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다만 금번 고용지표 상으로 연준이 금리인상을 서두를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존의 9월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